

이슬람과 젠더 이슈를 보는 새로운 시선과 만나다

: 오은경, 『이슬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정신분석을 통해 본 이슬람, 전쟁, 테러 그리고 여성』, 시대의 창, 2015

구기연*

1. 들어가는 말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상업영화인 ‘와즈다’는 사회적 금기에 맞서는 10살 소녀 와즈다의 이야기이다. 이슬람권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아직 무슬림 여성들의 이동권이 없다. 또한 생리하는 여성들은 꾸란을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오염된 존재’가 된다. 엄격한 여학교에서 선생님은 머리를 감추는 히잡과 더불어 얼굴을 가리라고 훈육하고 여성의 목소리는 마치 벗은 몸과 같다고 가르친다. 여성이라면 운전할 수 없고, 공공영역에서는 머리 뿐 아니라 얼굴까지 가려야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실에서 유쾌한 소녀 와즈다는 멋진 자전거에 마음을 빼앗긴다. 자전거를 사고 싶은, 어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이 소망이 사우디아라비아 사회에서는 비정상적인 것, 여성적이지 못한 것으로 치부된다. 가게 도에 딸린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없고, 자유롭게 거리를 다닐 수도 없고, 남편의 사랑이 식을까봐 일을 하지 못하는 엄마를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와즈다는 자신의 꿈을 향해 뜻을 굽히지 않는다. 실제로 이 영화가 개봉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사회에서의 여성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모여지며, 2013년에 드디어 여성들도 자전거를 탈 수 있게 율법이 수정되었다고 한다. 바로 이 <와즈다>에서 보여지는 여성들의 히잡 문제, 이동권/여행의 자유, 자유연애, 일부다처제, 엄격한 가부장제, 여성의 자기 결정권 등

*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은 이슬람권 안팎으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부분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낯설게 보고, 억압받고만 있다고 여겨지는 이슬람 사회에서 수많은 유쾌하고 당돌한 와즈다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춰져 있다. 또한 아름다운 목소리로 꾸란을 읊고,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무슬림 여성의 생생한 목소리와 생각을 듣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015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세계는 IS(Islamic State)라는 거대한 괴물과 조우하게 된다. 이 IS라는 순니 이슬람 무장단체는 ‘이슬람의 이름’으로 무고한 인질들을 참수하고, 민간인 학살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있다. 이로서 ‘이슬람’의 이름은 더욱더 폭력과 테러리스트의 종교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무슬림 여성의 이미지는 역사적으로 철저히 만들어져왔다. 서구 오리엔탈리스트의 시선에서 그들은 하렘에 갇힌 베일로 가려진 존재였으며, 그러므로 더욱더 엿보고 싶은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 동시에 무슬림 여성에 대한 수많은 이미지와 편견 속에서 무슬림 여성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그녀들은 늘 억압과 통제받는 혐오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그렇다면 정말 무슬림 여성들은 억압받으며 이중적인 타자가 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원인은 무엇인가?

터키·유라시아 투르크 전문가인 오은경 교수는 이슬람 여성¹⁾이 전통 가부장제와 서구 제국주의 사이의 이중적인 타자이며, 여성과 이슬람, 그리고 전쟁, 테러의 역학 관계를 정신분석학을 통해 그 원인을 찾고자 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는 베일문제, 명예살인, 섹슈얼리티와 같은 무슬림 여성들에 대한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정신분석학적인, 역사적인 학술적 접근이다. 둘째는 이슬람 지역 문학, 특히 터키 문학을 통한 여성주의적 접근의 시도이다.

1) 필자는 ‘지은이의 말’에서 “단순히 이슬람 신자로서의 여성이 아닌,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이슬람 문화권 전반을 기반으로 한 여성 층위를 다루기 위해, ‘무슬림 여성’이 아닌 ‘이슬람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밝힌 바 있다.

2. 이슬람에서의 여성으로 산다는 것

필자는 이 책에서 무슬림 여성에 대한 가장 논쟁적인 이슈들을 정신분석 이론들을 끌어와 해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슬람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이슬람 여성의 베일 착용 문제, 명예살인, 여성 할례, 테러와 여성 문제, IS 문제 속에서의 여성 문제 등과 같은 논쟁적인 이슈를 다룸으로써 이슬람 속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사회적 배경을 면밀히 되짚어 보고 있다.

1장 <이슬람은 여성의 성을 통제할까>에서는 특히 베일 착용을 통해 가장 가시적인 형태의 이슬람적 여성 통제로서의 베일의 의미를 설명해 내고 있다. 베일은 원래 이슬람권에서 시작된 관습이 아니라,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풍습이었다²⁾. 베일을 쓰게 된 원인으로는 햇볕이 강하고 사막이 많은 중동 지방의 기후에서 연유된다고 본다. 또한 가부장적인 권력과 국가 제도가 생겨나면서 여성의 베일이 점차 제도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베일이라는 상징적 매개체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기본 장치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것은 민족과 종족을 형성하는 과정의 핵심요소로, 가부장제와 국가가 확고한 기틀을 잡아 갈 때 매우 중요하다. 가부장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혈통이기 때문에 국가의 법적 장치를 통한 여성의 섹슈얼리티 통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³⁾.”

다시 말해 근대 국가가 건설되고, 혹은 대대적인 정권 개편을 맞이할 때,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국가의 법적 장치의 담보가 되며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가부장제 성격을 가진 대다수의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의 몸과 섹

2) 오는경, 『이슬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정신분석을 통해 본 이슬람, 전쟁, 테러 그리고 여성』 시대의 창, 2015, 17쪽

3) 위의 책, 19쪽.

슈얼러티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통제 받는 영역이 되는 것이다. 즉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 여성의 사적인 몸과 섹슈얼리티마저 ‘공적인 영역’에 진입하게 되고, 이슬람권의 공적인 영역은 다른 어떤 사회보다 넓고 강력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슬람권에서 여성의 베일이 보편적인 종교적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는 바로 꾸란에 혼인, 이혼, 상속과 더불어 베일 착용에 관한 여성에 대한 규범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믿는 여인들에게 일러 가로되 그녀들의 시선을 낮추고 순결을 지키며, 밖으로 나타내는 것 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보여서는 아니되니라. 그리고 가슴을 가리는 머릿수건을 써서 남편과 그녀의 아버지, 남편의 아버지, 그녀의 아들, 남편의 아들, 그녀의 형제, 그녀 형제의 아들, 그녀 자매의 아들, 여성 무슬림, 그녀가 소유하고 있는 하녀, 성욕을 갖지 못한 하인, 그리고 성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 외에는 그러내지 않도록 하라. 또한 여성이 발걸음 소리를 내어 유혹함을 보여서는 아니 되나니 믿는 사람들이여. 모두 하나님에게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변성하리라(꾸란 24장 31절, 본문 pp21-22)⁴⁾”

저자는 바로 이 꾸란의 구절이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성적 자극을 할 수 있는 매개체로 규정하고, 여성의 몸을 악마화, 타자화 하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베일은 강력한 가부장 중심의 사회 내에서 견고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저자는 민족의 상징으로 호명되는 무슬림 여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작동방식을 가장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무슬림 여성의 베일이라고 논한다. 즉 이슬람에서 베일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베일이 민족 정체성 혹은 이슬람 문화 정체성을 드러내는 바로 그 자

4) 꾸란, 24장 31절/ 위의 책, 21~22쪽.

체이기 때문이다. 여성은 인종적/민족적 차이의 기표가 되고, 민족 집단의 생물학적 재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민족, 계급, 가족과 관계없는 여성이 사회 담론 속에 속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사실 이러한 민족 담론에서의 여성의 위치는 한국의 사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개념이 아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 책의 논리구조는 이슬람권 여성들과 국가, 민족과의 관계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의 모성의 강조와 민족 담론과 여성의 역할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익함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슬람권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은 ‘오리엔탈리스트’의 시각처럼 특수하며 비정상적으로 독특한 것이 아님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여성이 타자의 시선에 의해 그 어떤 존재보다 특별하며 비정상적인 존재로 타자화되는 예는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베일을 쓴 여성에 대한 특별한 시선은 오히려 그 여성에게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한다.

이 책에서 가장 주목하고, 또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정신분석 이론을 통해 이슬람의 특성만으로 여겨지는 베일이나 할레 혹은 명예살인을 해석해 내는 것이라 단언할 수 있다. 저자는 “무슬림이 여성에게 베일을 쓰게 함으로서 이슬람 공동체를 드러낸다는 맥락에서 이슬람 여성의 베일은 페티시fetish다. 페티시는 팔루스⁵⁾의 부재를 은폐하는 어머니의 가면이다.”라고 논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페티시즘(fetishism)을 통해 무슬림 남성이 여성에게 베일을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어머니가 팔루스, 즉 사회·문화적 권력이 없다는 현실을 숨기기 위해 대체물로 페티시를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하

5) 이 책에서 내린 팔루스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해 보자.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거세 콤플렉스로 인간의 성적 정체성 형성 과정을 설명했다. 이때 프로이트는 페니스의 유무에 해부학적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결국 여성은 페니스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남근 선망 penis-envy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라캉은 프로이트의 페니스 개념을 사회·문화적인 권력 개념으로 다시 정의내렸다. 생물학적 페니스 자체가 아니라 페니스에 부여하는 사회·문화적 권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회·문화적 권력이 바로 ‘팔루스phallus’다(위의 쪽 p.75쪽).” (평자 강조)

고 있다. 또한 저자는 이 책에서는 라캉의 “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테제를 통해, “여성은 팔루스의 대체물로만 비로소 자신을 나타낼 수 있고, 팔루스의 대체물로만 자신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팔루스의 표상 구조 속에서 완전히 포섭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설명한다. 여성은 남성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치에 동의함으로써 팔루스가 되려고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결핍과 결려를 메우려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이 자발적으로 베일을 착용하는 이유가 된다.

한편, ‘환상’이라는 정신분석학적 개념으로 베일은 다시금 해석된다. 베일은 환상을 조작하는 장치가 되며, 베일 속 여성의 몸은 그 자체로 환상을 생산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여성의 몸은 금기 → 환상 → 위반 → 금기 → 환상 → 위반의 순환을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설명한다. 이로서 베일을 착용한 여성의 몸은 금기가 되고 동시에 그 금기를 위반할 수 있는 쾌락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슬람은 베일을 통해 여성을 향한 성적 시선을 차단하고자 했지만, 여성은 육체를 은폐하고 육체의 성애화를 억압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성적 주체로 만든다⁶⁾”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평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 할 수 없다. 정신분석학적인 해석을 넘어, 실제적으로 모든 여성이 법적 규범으로서 히잡이 의무화되어 착용의 선택권이 없는 이란이슬람공화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 그리고 부르카를 강요받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베일이 오히려 그녀들을 성적 주체로 만들어 준다”라는 저자의 정신분석학적 해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 할 수밖에 없다.

저자의 베일과 여성 혐오, 명예 살인 등의 이슬람의 젠더 제문제에 대한 정신분석학적인 접근은 한국의 이슬람학/중동학계 내에서도 처음 시도되는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선한 시도는 생소하면서도 동시에 앞에서 살펴본 뜨거운 젠더 이슈들이 ‘이슬람 제도권만의 문제’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젠더와 사회 구조에 대한 정신

6) 위의 책, 85쪽.

분석학적 접근 방식은 이슬람권에 국한되기 보다는 권위를 우선시하는 가부장제에 대한 일침이며, 젠더 문제의 보편성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보편적인 중요성과 의미를 가진다.

3. 터키 문학 분석을 통해 본 여성주의적 시선

이 책의 또다른 큰 줄기는 한국 독자들에게는 다소 생소 할 수도 있는 터키 문학에 대한 분석이다. 저자는 터키 문학을 통해 문학 작품에서 드러난 여성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켜 문화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터키 사회도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이미지는 ‘사적 공간’에 머물러야 할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비단 이슬람 사회 뿐 아니라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근대적 민족국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여성은 공적인 공간이 아닌 사적 공간에 머물러야 할 존재로 여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들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공적인 공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베일을 써야한다는 주장이 내부의 설득 논리로 진행된다.

다음의 저자의 주장대로 이슬람 사회의 근대적 민족국가의 탄생 과정에서 신여성으로 여겨지는 높은 계급의 여성들마저 모성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근대적 주체로서 가부장제에 저항했던 신여성의 성 담론은 지배 담론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근대적 민족의 탄생에 역행하는 개념이었다. 새로운 상상적 공동체인 ‘민족’의 탄생을 위해서 여성은 어머니 또는 정숙하고 충실한 아내에 머물러야 했던 것이다. 여성은 민족적 차이와 경계를 재생산하고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

이에 도전하는 여성은 절대 용납될 수 없었고, 마녀사냥의 과정을 거쳐 근대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민족 담론의 칼날에 좌절되고 말

았다. 결국 신여성은 모성 이데올로기와 여성들의 탈성화 전략 하에서 '현모'와 '양처'로 거듭나게 된다.⁷⁾

이러한 여성에 대한 민족 담론적 해석과 '모성'을 강조하는 담론은 국가적 위기에 더욱 발현된다. 예를 들어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 8년간의 전쟁의 애국 담론 속에서 여성들은 '순교자의 어머니, 순교자의 아내, 순교자의 누이'의 이미지로 강조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중동 국가들의 벽화 속에서 여성들은 승구한 모성을 가진 신실한 어머니로 표현된다.

오은경은 “6장 남성의 별어진 상처, 명예살인”에서 이슬람 여성에 대한 억압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사례로 여겨지는 명예살인을 정신분석학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다. 저자는 <<소설 독사를 죽였어야 했는데>>를 통해 작품 속 봉건적 사회 구조 속에서의 혈연관계와 명예, 복수심과의 유기적인 구조를 설명해 낸다. 사실상 이슬람에서 명예살인은 단순히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나 문화적 인식만으로는 설명해 낼 수 없다. 저자가 설명한 대로, 명예살인은 이슬람 사회의 가부장적인 가족 구조와 민족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저자는 “명예살인은 완전함을 믿는 남자들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다. 또한 명예살인은 완전함을 회복하고 완전함이라는 환상을 실현하기 위한 가면⁸⁾”이라 설명한다. 또한 명예살인은 “남성이 여성을 소유물로 보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완전함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하는 위장⁹⁾”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명예살인은 남성이 여성을 소유물로 간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은 오히려 “남성 자신” 즉 “그의 존재 What he is”의 층위라는 저자의 주장은 시선을 끈다. 여성은 남자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남성은 가족인 여성을 명예 살인함으로써, 불결하고 오염된 상처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7) 위의 책, 42쪽.

8) 위의 책, 93쪽.

9) 위의 책, 103쪽.

명에 살인의 또 다른 중요한 배경이 되는 강력한 민족주의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구성하는 요인이 된다. 8장 “민족담론과의 결별, 여성-되기”을 살펴보자. 아달렛 아아오울루의 소설 <죽으려고 눕다>는 진보적인 터키공화국의 수립되는 과정과 그 이후의 국가 재건설 과정에서의 터키 지식인 여성의 삶을 조망하고 있다. 여주인공인 아이셀의 굴곡진 삶을 당시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제도 변화의 틀 속에서 살펴봄으로서, 터키의 근현대사를 다시금 되짚어 보는 것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근대 국가의 건설자들은 전통과 단절하는 반이슬람 및 세속주의 노선을 취했지만, 터키 여성의 위치는 여전히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근대화와 여성 혁명의 본보기로 시작된 여성 근대교육은 지식인 여성을 탄생시켰지만, 여전히 여성들 사이의 계급과 차이는 극복할 수 없었고 공화국 이후 터키 민족주의자들의 여성해방속에서도 성별에 따른 통제와 규범의 상이함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5. 나오는 말: 이슬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이슬람권의 테러와 전쟁 뿐 아니라 터키 희곡<벼 이삭 푸르러지리라>와 회고록 <한국전쟁에서의 터키인>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에 대한 터키 무슬림들의 시선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 한국 전쟁 당시 파병되었던 터키군의 시선에서 비춰진 당시의 한국의 모습과 문화는 한국-터키 간의 교류사의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시사하며 한국 전쟁에 대한 신선한 새로운 시각이라는 점에서 후속 연구가 기대되는 지점이다.

이 책은 이슬람권에서의 여성의 제문제를 다각적으로 다루었다는 점 그리고 정신분석학적인 관점에서 이슬람과 젠더의 문제를 입체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둔다. 이러한 유의미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평자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필자는 ‘지은이의 말’에서

“단순히 이슬람 신자로서의 여성이 아닌,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이슬람 문화권 전반을 기반으로 한 여성 층위를 다루기 위해, ‘무슬림 여성’이 아닌 ‘이슬람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을 밝혔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이슬람 문화권 전반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논했다는 점에는 높은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 점에서 필자 스스로 비판하던 이슬람을 파악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주변의 관계망 속에서 보아야한다는 주장의 논지에서 어긋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슬람 여성’이라는 용어가 내포할 수 있는 총체적인 면 또한 중요하지만, 이것이 가지는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슬람권’이라는 큰 우산 아래 각 지역만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슬람 지역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데에서 기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염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저자의 전공분야인 터키 문학이나 정신분석학을 통한 터키 여성에 대한 세부적이고 터키만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반영된 후속 연구에 대한 기대를 해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적된 사소한 문제들이 본 연구의 한국 중동학계와 이슬람권 문학 연구에 기여한 공로의 가치를 저하시키지 못한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권 여성들을 보는 시각은 제한적이며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무슬림 여성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과 학문적 접근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슬람권에 대한 다각적인 해석과 심층적인 지식을 통한 접근법이 필요한 방향이라고 할 때, 이 책은 그 접근방식의 필요성에 대해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